

건축유산 보존의 새로운 방식 제안

- 김중업의 건축언어를 활용한 제주대학교 구 본관 재해석 -

A Study on New Method for the Preserv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

- Reinterpretation of Jeju National University's Building Using Kim Joong Up's Architectural Language

○박 민 혜* 김 소 영**
Park, Min-Hye Kim, So-Young

Abstract

Architectural heritage that has been demolished, left only as records, or neglected under the name of “preservation” raises important questions for both architects and society. Should we preserve its value through faithful restoration, or reinterpret it in line with contemporary needs? This study explores a new preservation approach by analyzing and applying the architectural language of architects. As a case study, the research examines the former main building of Jeju National University designed by Kim Joong-Up, currently under discussion for restoration. His architectural philosophy and design language are identified and combined with the university’s present demands to develop a design proposal. The findings suggest that preservation through an architect’s language provides a meaningful alternative to conventional restoration methods.

키워드 : 김중업, 건축유산, 재해석, 건축언어, 제주대학교

Keywords : Kim Joong-Up, Architectural Heritage, Reinterpretation, Architectural Language, Jeju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 개발 과정에서 많은 근현대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기록으로만 남고 있다. 일부 건물은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과거 건축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보존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표적으로 영국의 이론가 존 러스킨(John Ruskin)과 같이 건축 유산을 도덕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건축가 비올레 르 뒤크(Viollet-le-Duc)의 주장처럼 구조적 합리주의에 따라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전자의 경우 건축의 진정성을 보존할 수 있지만, 현재와 단절된 채 또다시 활용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후자는 원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과거의 유산을 지금의 사회와 연결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전에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가 지적했듯 보존이 더 이상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존 공간을 재창조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순히 옛 건물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가의 언어와 철학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적 맥락 속에서 되살려내는 방식을 탐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주대학교 구 본관을 사례로 삼아 건축가 김중업의 건축언어를 도출하고, 이를 현대적 요구와 결합해 새로운 보존·재해석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2. 제주대학교 구 본관의 역사와 현황

2.1 제주대학교 구 본관 분석

제주대학교 구 본관은 1964년 준공된 건물로, 제주 지역 근대 건축의 상징이자 대학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공간이었다. 설계자인 김중업 건축가는 르 코르뷔지에 사무소에서 익힌 모더니즘을 제주의 지형성과 접목하였다. 본관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는 학사 행정뿐 아니라 학생회관, 식당, 도서관, 민속박물관 등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많은 학생이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은 내부에 직통 계단이 없고, 모든 동선이 외부 램프를 통해 연결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제주도의 지형과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동선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원래 제주 북쪽 해안가에 있었던 이 건물은 제주대학교가 아라캠퍼스로 통합되면서 1995년 철거되었다. 철거에 영향을 미친 주된 원인은 구조적 노후화, 해풍으로 인한 부식, 기능적 불일치, 유지보수 비용 증가가 있다. 현재는 부지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가 운영

되고 있으며 구 본관의 흔적은 사진 자료와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제주대학교 구 본관 (1970)

2.2 제주대학교 구 본관의 복원 계획

2023년부터 제주대학교 구 본관의 복원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제주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제주 교육 발전의 상징이었으며, 건축적으로는 김중업 특유의 독창적인 건축언어와 현대적 실험이 담긴 사례이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제주도민과 학생들의 기억, 지역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공동체의 장소로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복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현재 법규상 피난 동선, 내진 구조 보강 등의 문제로 원형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현대적 기능을 수용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5-2034 제주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완공 당시 모습을 복원 시점으로 설정하고, 아라캠퍼스 남쪽 부지에 복원시킬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제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 본관 건물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활용 방안이 많은 김중업의 건축언어를 재해석하는 방식을 실험하고자 한다.

3. 김중업 건축가의 건축언어

3.1 김중업 건축가 분석

김중업(1922~1988)은 한국 근대 건축의 대표적 건축가로, 르코르뷔지에 사무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더니즘과 한국적 요소의 융합을 추구하였다. 그의 일생과 건축 철학은 크게 세 가지의 시기로 나뉜다. 그는 초기에는 근대 건축 5원칙의 요소들을 사용하는 모더니즘 양식의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후, 본인만의 방식을 찾기 위해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모습을 보였다. 한국 건축의 선을 사용하며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같은 대표작을 남긴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미국을 다녀온 후에는 조형적인 실험을 자주 보여주는 후기 건축을 맞이했다.

본 연구에서는 김중업의 대표작들을 분석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은 아홉 가지 건축언어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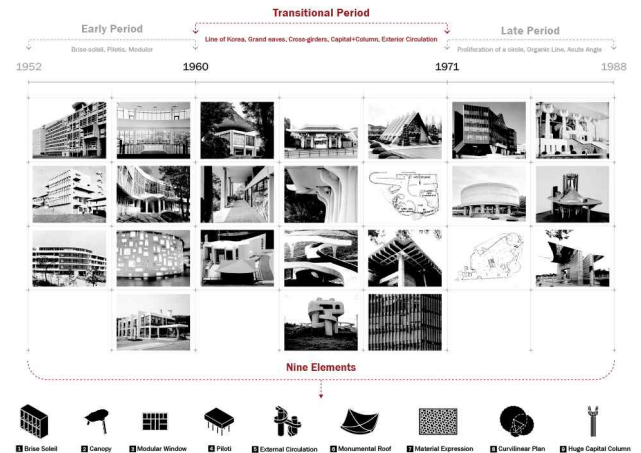


그림3. 김중업의 9가지 건축언어

1) 브리즈 솔레이유 2) 조형적 캐노피 장식 3) 모듈러 창 4) 필로티 5) 외부 순환 장치 6) 거대한 곡선 지붕 7) 재료 표현 벽화 8) 둥근 평면 9) 기둥 캐피탈 디자인 이러한 요소들은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단순한 양식적 특징을 넘어, 김중업의 건축적 철학과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언어적 장치라 할 수 있다.

3.2 제주대학교 구 본관과 건축언어의 연관성

제주대학교 구 본관은 위의 건축언어 중 8가지가 적용된 사례이다. 건물 전면부의 규칙적 창호 배열은 모듈화된 입면의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상층부의 거대한 둥근 매스와 지붕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또한, 세 개의 다른 곡선을 가진 경사로를 통해 제주의 지형과 기후를 고려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림 3’과 같이 사용된 건축언어들은 주로 자유곡선과 원형 지오메트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구 본관이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건축가의 언어와 철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축적 실험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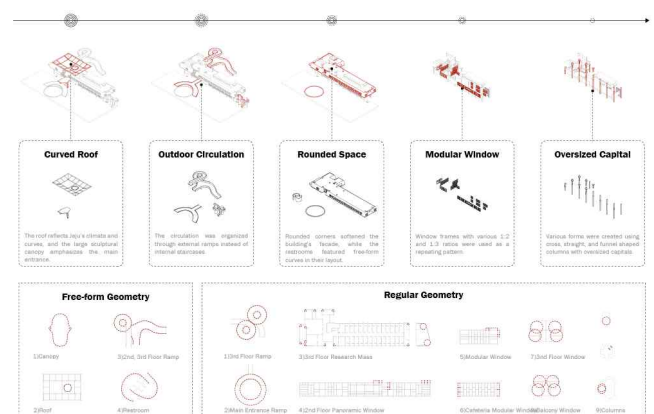


그림3. 제주대학교 구 본관에 쓰인 건축언어

4. 현대 제주대학교의 요구와 설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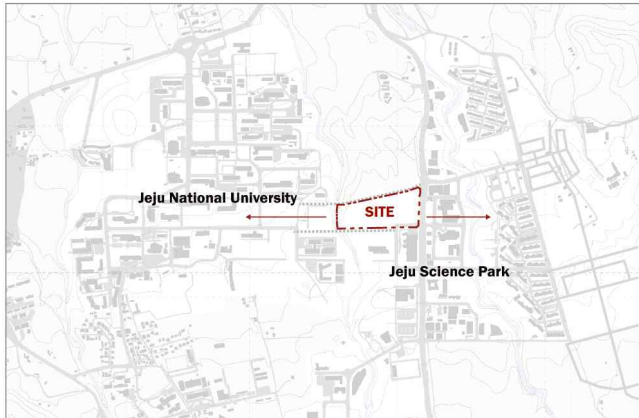


그림4. 대상지 선정

4.1 대상지 선정 및 프로그램 분석

원래 건물이 있던 용담캠퍼스는 현재 고등학교가 들어서서 대상으로 부적절하였고, 아라캠퍼스 남쪽 복원 예정 부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과 인접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한 위치를 새로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카카오 본사, JDC, 연구·업무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제주대학교 마스터플랜에서도 산학연 협력과 지역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제주대학교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산학연 협력, 지역사회 연계, 학생 교류를 위한 허브 공간이 필요하다. 단순 행정 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산업이 융합된 복합공간이 요구되며, 이에 본 연구는 캠퍼스 중심부를 새로운 허브로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적으로는 강의실과 연구실뿐 아니라 전시·교류·세미나 공간을 포함하여 보존성과 현대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제안한다.

4.2 매스 디자인 및 주요 요소 배치

설계안은 김종업의 건축언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좌우의 대학 구역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매스를 설정하고, 중앙 아트리움과 경사로·테라스로 이를 이어주었다. 필로티와 분절 매스를 활용해 제주의 기후에 대응하며, 곡선 지붕은 자연과의 연속성을 형성한다. 모듈 창호는 과거의 리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외부 순환 동선과 옥상 정원은 개방성과 교류를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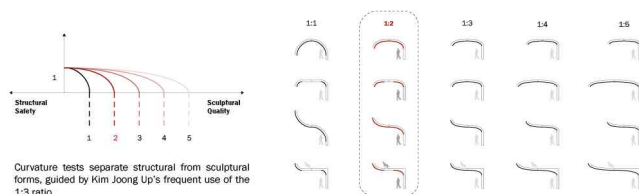


그림5. 곡률 테스트

동일하게 사용될 곡선은 1:1부터 1:5의 비율까지 실험하여 김중업의 조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실험의 결과로 1:2의 곡률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5. 건축언어 실험을 통한 설계안

5.1 건축언어의 새로운 적용

최종 설계안은 김중업의 건축언어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요구에 맞게 적용한 결과물이다. 직선적인 매스는 강의실과 사무실, 연구실이 있는 기능적인 공간이며, 볼륨감있는 매스는 코워킹 스페이스, 컨퍼런스 홀, Fab Lab같이 개방된 협력 공간이다. 요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기둥과 지붕은 곡선을 합쳐서 옥상의 난간까지 하나의 콘크리트 셸 구조를 만든다. 기둥은 3.2m의 지름, 두께 600mm로 크기를 확장하고, 내부 공간을 소규모 회의실과 자료실로 활용한다. 내벽과 멀리언에도 동일한 곡선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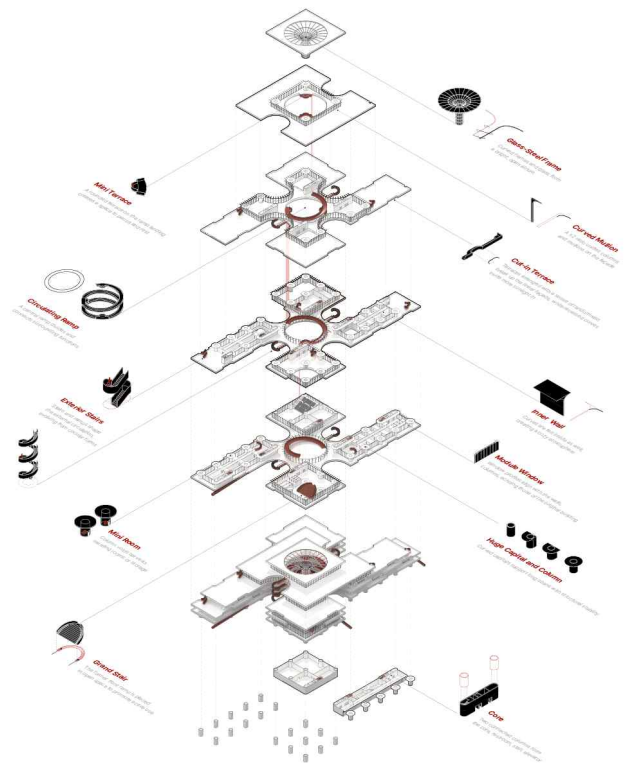


그림6. 요소의 변형과 적용



그림11. 단면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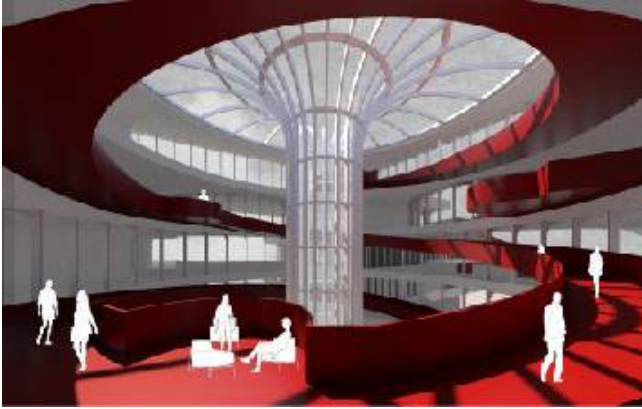


그림7. 중앙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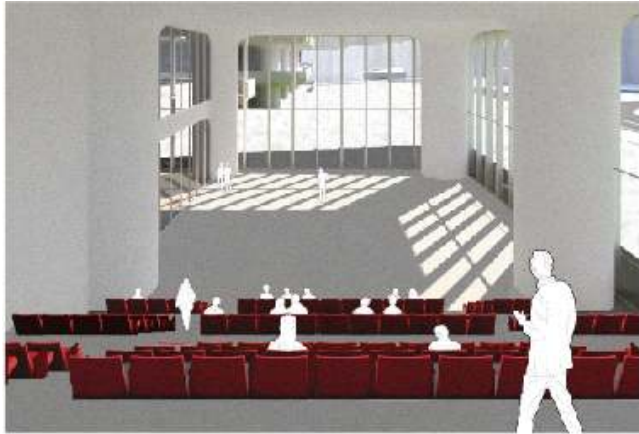


그림8. 컨퍼런스홀

모듈 창호와 순환형 테라스는 빛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다. 중앙 아트리움은 네 개의 다른 성격의 건물이 교차하는 곳으로 4개 층의 큰 열린 공간을 만든다. 일반적인 사무실, 강의실 평면과 열린 사무실 평면을 적용하여 필요에 따라 학문과 산업, 지역사회가 집중하고 융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그림9. 오픈 오피스

6. 결론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구 본관을 사례로 삼아 건축 유

산 보존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원형 복원과 단순한 재해석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건축가 김중업의 건축언어를 기반으로 이를 현대적 프로그램과 결합하는 방법을 실험하였다.

제시된 설계안은 과거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현재 대학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공간을 담아내려는 시도였다. 이는 건축 유산 보존이 단순히 옛 모습을 재현하는 일이 아니라, 당시 건축가의 철학과 언어를 오늘의 맥락에서 새롭게 이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방식은 건축 유산을 과거의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건축가의 언어를 매개로 한 보존은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건축적 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한국보전건축연구소, 보전 건축 설계방법론_건축가는 역사적인 구조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2022
2. 김중업건축박물관 학술연구사업, 김중업 건축작품 기록화 사업(교육-연구시설편). 2023
3.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옛 본관 복원-재현 공개토론회 자료집. 2023
4. 제주대학교. 2025-2034 제주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 요약보고서. 2024